아킬레스건 제로의 마음과 삶

(시편 140:1~13)

1.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2.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3.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4.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5.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킬레스건 제로의 마음과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킬레스건 제로의 마음과 삶'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발뒤꿈치에 있는 힘줄입니다. 아킬레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전설적 영웅입니다. 아킬레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신이었던 테티스는 어린 아들을 위해 저승으로 가서 스틱스 강에 목욕을 시킵니다. 저승을 아홉 바퀴나 휘감고 있는 스틱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강철 같이 단단해져서 어떤 칼과 창으로도 상처를 입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티스가 아킬레스를 강에 담글 때에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강물이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목 뒤의 힘줄은 아킬레스가 다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적장 파리스가 아킬레스의 약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독을 묻힌 화살을 아킬레스를 향해 날렸고 이것이 발뒤꿈치에 꽂히면서 아킬레스는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아킬레스건은 약점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 속에서 암시되고 있는 요점은 무엇일까요?
스틱스 강이 저승의 강이라는 점입니다. 저승의 물이 묻은 부분은 이승에서 어떠한 공격에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곧 저승에 속한 것이 이승에 들어오게 되면 월등한 속성을 지닌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저 세상에 속한 존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날마다 겪는 마음의 상처와 연관지어봅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유전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마음이 육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묶여버린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음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을 채울 수 없게 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실 육체의 죽음 자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육체를 통해서 마음 채움 거리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인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육체가 죽으면 애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채움 거리로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채움 거리로 여기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자녀를 만날 수 없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와 묶이게 된 마음은 이 세상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승의 스틱스 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닷물로 전신을 목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마음 전체가 아킬레스건입니다. 마음의 모든 곳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빠진 상태에서 내 몸을 통해 사회적 가면(persona)을 구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인식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몸에 묶여서 이 세상에 빠져버린 마음은 전신이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 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몸이 처하는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걱정이 생깁니다. 돈이 조금만 벌리지 않아도 걱정을 하는데 이미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큰 기쁨이라는 에덴이 뜻하는 바와 같이 마음이 건강한 상태는 곧 에덴에서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큰 기쁨이 없어져서 상처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등의 모든 상황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기인합니다. 삶은 주어진 상황이나 타인의 말 혹은 원수들의 행동에 의해서 상처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기 분노조차도 상처로 인해 생긴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의 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 몸 자체가 내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몸에 붙어버리자 세상에 빠지게 되었고, 마음 전체가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지만 판단을 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내 몸이 처한 상황이나 주변에 대해 마음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실험적으로 체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호불호를 판단하지 않으면 마음이 빠져들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없는 마음 상태가 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사울의 추적을 받을 때라 추정합니다.
1~5절을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위태로움을 강렬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인간의 위태로움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릴까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원수들은 날마다 나를 둘러싸고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혀를 움직이며 죽일 궁리를 합니다.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삶의 위기상황입니다. 마치 아킬레스의 뒤꿈치를 노리던 파리스의 독화살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두렵고 염려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원수들이 무서운 이유는 내 마음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게 만듦으로써 에덴을 없앱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도 원수가 됩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고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을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보다도 더 우선적인 현실이 되어 내 마음을 정복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이나 원수 등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현실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서 첫 번째 현실이 되실 때에만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나 건강을 챙기기에 앞서 마음을 챙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이 되실 때에만 마음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첫 번째 현실이 되셨을 때에 내 마음의 아킬레스건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원수가 공격하는 상황에 몰입하여 하나님보다 우선시 할 때에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무한히 상처받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걱정 우울 분노 짜증 등의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상황이나 원수로 인해서 세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마음 전체가 아킬레스건이 되어버

립니다. 저승의 스틱스 강에 몸을 담군 아킬레스가 강해졌던 것과 반대로 마음 전체가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돈이 안 벌리면 아내의 말 한마디에 화를 냅니다.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족과 연결되는 마음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빠질 때에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하늘을 벗어나 이 세상에 빠지면 세상과 접촉하는 모든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걱정 근심 분노 괴로움 시기 등이 들어와 마음을 상처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지 않는 마음은 하늘에 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 원수들이 무서운 이유는 원수가 활성화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들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파란 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에 의해서 이 파란 피의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인생에 개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던 모든 계획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원수가 무섭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느낀 위태로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표현된 이 위기감의 표현은 곧 우리에 대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렇게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느끼십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마음을 담글 위험해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담그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에 출혈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담그는 것이 곧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 마음이 가서 접촉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었다고 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동안에는 아킬레스건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라도 마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앞장서서 돌로 치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공격을 당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받

지 않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마음이 천하무적이 되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아킬레스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야말로 진정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신앙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즉 십자가를 믿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진 마음은 전신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신경질이 나고 걱정되고 화가 나십니까?
마음 전신이 아킬레스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박힌 못, 창에 찔린 옆구리, 채찍에 맞아 찢겨진 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은 이 세상을 향해 머리 쓰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이 세상에 대한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소원을 죽이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신 것은 마음이 사랑해서 살이 되어 붙어버린 세상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오신 하늘이셨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는 마치 아킬레스가 들어갔던 저승의 스틱스 강물과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마음을 감쌀 때에 약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 상태가 될 때에 내 삶에 아킬레스건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의 완성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한 증거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이라고 하였습니다.
형들의 배신과 패륜적 행동조차도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재료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셨지만 그 행동에 대해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면 삶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킬레스가 저승의 스틱스 강에 몸을 담갔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늘에 속해 계시는 예

수님이 흘리신 피에 우리의 마음을 담가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킬레스건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과 사건들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외면한 일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등 돌리고 십자가를 볼 때에 자녀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지속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일과 공격에 대해서도 상처받지 않는 아킬레스건 제로의 마음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여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심을 끌려하는 세상일들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피에 마음을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파란 피의 출혈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킬레스건이 없는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